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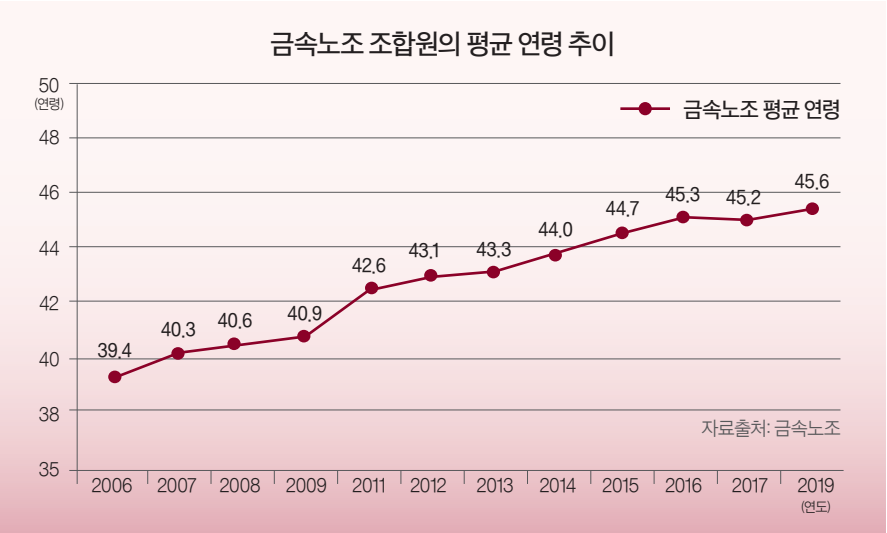
노동조합의 청년 참여 저하

# 세대 교체 멈춘 노동조합, 청년 유입 가능할까

비정규직 증가로 청년 조합원 감소  
노동조합 부정적 인식도 원인  
청년 조합원 의사반영 필요해

노동조합(노조)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다. 새로 유입되는 청년 조합원의 부족으로 기존의 노동조합은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2019년 기준 조합원 평균 연령이 만 45.6세에 도달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청년들도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고, 교육을 받아 간부로 남는 경우는 더욱 적어 앞으로 노동조합을 이끌어 나갈 청년층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민주노총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분회(분회장=서재순, 고려대분회)는 137일 간의 투쟁을 끝마쳤다. 고려대분회의 투쟁은 시급 인상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갈등과 연대가 맞물려 있었다.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고려대분회와 연대해 학내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과 학내 노동자가 함께 학교 측에 미화노동자의 시급 인상을 요구했다. 권기유(문과대 사회20) 씨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노학연대의 흐름이 올해 대면 수업, 본관 점거 투쟁과 맞물려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내 노동자 또한 학내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유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면서 대학생으로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더 많은 학우들에게 노학연대의 필요성과 노동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학생들이 CJ택배노조와 연대해 지지하기도 했다. 대학생 대선실천단 단원들이 CJ택배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연대

해 농성을 함께했다. 대학생들은 ‘택배 노조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은 더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택배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며 동조단식을 진행하고 연속 발언을 이어 나갔다.

**변화 필요한 노동조합**  
하지만 대학생들의 노동운동 참여는 전체 대학사회나 국내 노동시장의 전반적 시각에서 본다면 미미한 정도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한국노총에서 2019년 발표한 ‘청년 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과제-한국노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0% 내외로 이미 저조한 수준이다. 청년층 노동조합 조직률은 7% 내외로 더욱 열악하다. 2021년 기준 민주노총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들이 노조와 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직과 퇴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점점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에 가입이 힘들어졌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김우식 연구위원은 “회사에 확실히 소속돼야 노동조합에 가입할텐데 유동적인 노동 활동은 오히려 이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청년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 여건 개

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어렵다. 권기유 씨는 “IMF 이후 노동자는 사회를 바꾸나가는 주체에서 사용자에 종속된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며 “당장의 노동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김우식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의 참여율 저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여전히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정적인 인식에 노동조합이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 조합원과 간부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김우식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중요성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더 수평적인 문화와 조직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구성원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의 문화가 굳어지면서 시대 흐름에 뒤처지게 됐다.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옥미애 연구위원은 “이미 체제와 조합원이 고착화된 노동조합 내에서 청년들은 주변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청년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옥미애 연구위원은 “청년 조합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는 사실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노동조합의 결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고민에서 비롯된 노조에 대한 기대 저하가 청년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인 단체를 설립하는 사례를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감소하는 노동조합 내 청년 조합원의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두되는 해결 방안이 노동조합 내 청년 중심의 부서·조직의 설립이다.

**청년이 직접 목소리 내야**  
민주노총은 지난해 청년사업실을 신설했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사업실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을 통해 청년 간부를 육성하고 청년을 조직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은 현재 청년위원회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청년사업실 체계가 완벽히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김우식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의 지도부나 위원장이 바뀌면 청년 사업실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의 경우 조합에 가입한 주요 사업장들은 대기업 정규직과 생산직 위주로 구성된다. 사무직처럼 매년 공채를 열어 직원을 고용하는 직종과 달리 이들은 채용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청년 노동자의 절대적 비율이 적다. 금속노조와 같은 제조업 노동조합은 산업 자체가 고령화돼 청년 조합원을 끌어들이기 힘들다. 청년 조합원의 수가 적은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청년 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된다.


공무원 노조와 공공운수 노조 등의 단체에서는 청년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임원직에 청년을 배치하는 제도를 완비해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김우식 연구위원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젊은 노동자의 수가 많을수록 청년 중심의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문제’를 청년 조합원들이 직접 정의하고, 상향식 논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옥미애 연구위원은 “젊은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이 참여층의 확대와 단위노조의 조합원 대표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목격했다”며 “청년세대의 관심사, 이익을 조합원 복지에 반영하려는 문화적인 접근보다 그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청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지원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 | 이가림 기자 forest@사전 | 고대신문 DB



7월 13일, 본교 본관 앞에서 학생들과 학내 미화 노동자가 연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대학원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모집 일정

모집 기간

2022년 10월 04일(화) ~ 17일(월)

입학 시험

2022년 11월 19일(토)

※ 대학원 법학과, 디자인조형학부는

2022년 11월 18일(금) 예정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15일(목) 예정

문의사항

• 홈페이지

https://graduate.korea.ac.kr

• 이메일

graduate1@korea.ac.kr

• 유선전화

02-3290-1357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s://graduate.korea.ac.kr) 참조